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3년 연속 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4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폐암은 증세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위험 질환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에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 및 폐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3개 기관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폐암 적정성 평가과정은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전신요법, 방사선치료 등 영역별 20개의 지표 분석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의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 인력 구성률이 포함되어 치료의 접근성 등도 평가되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결과에서 모두 10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폐암 치료에 있어 전문 인력 현황 및 진단 치료 체계가 매우 우수하여 폐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법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난 19일 5층 대강당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을 모신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약 400여 명의 교직원과 환우들이 참석했으며, 식순에 따른 육법 공양과 함께 본원 1층 로비에서 환우들의 건강 발원을 기원하며 소원초 띄우기와 관불식을 진행했다. 이날 법문을 통해 자광 스님은 “부처님은 오실 때 팔만사천대장경의 방대한 말씀과 더불어 지옥과 극락도 가지고 오셨다.”라고 전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음은 창조의 근본이요 바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 협력, 상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며, 무명심(無明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은 수검 동안 쌓인 어두운 동굴과 같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며, 모두 등불을 밝혀 밝은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야 생로 병사에서 벗어나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광명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염원한다.”라며 설법을 마쳤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주)이루다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주)이루다는 지난 19일 침 치료 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향후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의료원 한의학과 박성윤 교수가 2015년부터 2년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피부, 미용, 성형 등의 레이저 의료가기 전문 기업인 (주)이루다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된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의 결과이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기기의 주 기능은 기존 레이저의 단점인 뜸의 온도 상승 및 침투 깊이의 정량화 한계와 레이저 침의 동시 시술이 불가능했던 기능을 대폭 개선한 융·복합 다 파장 레이저 및 고주파 침, 뜸 치료기기이다. 또한, 체형, 성별, 연령 등의 체질별 건강 수준 데이터 및 자문의의 처방을 바탕으로 시술자에게 자극 부위와 시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방 레이저 시스템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오만구 의료원장은 “동국대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바이오대학 등을 동국대일산캠퍼스에 집적시켜 융·복합 연구를 통한 혁신적 기술을 관련 전문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겠다.”라고 전하며, “나아가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닌 산업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레이저와 RF를 활용한 침, 뜸 치료 장치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동국대학교한방병원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 지역 어르신 대상 퇴행성관절염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는 지난 14일 일산서구보건소 주관 ‘퇴행성 관절염’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지역 노인대학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설명과 ▲골관절염의 원인 ▲골관절염의 치료 목적 ▲치료의 종류 ▲수술적 치료 방법 ▲물리치료와 관절 운동 등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치료방법과 무릎 통증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박 교수는 골관절염 환자들의 꾸준한 치료는 동통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질병에 대한 환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추천했으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은 관절의 혈행 증진으로 동통 감소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했다. 강의 후에도 많은 어르신들은 관절염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관절염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김포 가연마을 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4월 1일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가연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이승철 교수, 재활의학과 전공의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행정직, 기술직 등 연우회 회원을 비롯한 35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연우회는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 내원이 힘들었던 환우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재활치료, 수액 요법 등 다양한 의료봉사를 했다. 한편, 김포 가연마을은 대한불교 조계종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본원 연우회와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비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알 리 미

고양시 연등행사 일시 : 4월 27일 (목) 16시~21시 | 장소 : 화정중앙공원

서울 조계종 연등행사 일시 : 4월 29일 (토) 16시~22시 | 장소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대운동장